

## Vast bank, 美 은행 최초 가상자산 매매서비스 출시

김 효 섭 연구원(hyosupk@hanafn.com)

Vast Bank는 美 통화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미국 은행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서비스를 출시하고 美 FDIC 가입에 따른 예금보장,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규제 확립 등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Vast Bank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검토하여 국내도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화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 美 Vast Bank는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 21.1월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받은 Vast Bank는 ’ 21.9월 미국 연방인가은행 (federally chartered bank) 중 최초로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출시
  - 연방준비제도(FED) 인가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된 Vast Bank는 1982년 오클라호마주, 톨사에 설립된 은행으로 현재 해당지역에서 5개 지점을 운영
- Vast Bank 고객은 모바일앱을 통해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8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 매매 및 보관(custody)이 가능
  - 현재 취급 중인 가상자산 8개: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카다노(ADA),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파일코인(FIL), 오키드(OXT), 알고랜드(ALGO)

### ■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등 핀테크와는 다른 은행만의 차별화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

- (No lockout) 개인키 분실 시에도 개인인증을 통해 액세스가 가능하며 사망 시 Vast Bank는 수탁관리자(custodian)로서 고객이 지정한 수혜자에 가상자산을 전달
  - Chainalysis에 따르면 2021년까지 비트코인의 약 20%(1,400억 달러)가 개인키 분실 또는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장된 것으로 추정
- (크립토 계정 보험) Vast Bank의 예금계좌는 최대 25만 달러까지 FDIC에 의해 보장되며 가상자산 계정은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제공하는 공동 보험이 적용
  - Vast Bank는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도난 손실 보험(피해배상액 최대 2억5,500만 달러)에 가입
- (저렴한 수수료) 거래수수료는 1%로 책정해 다소 높은 편이나 입출금이 무료
  - 글로벌 거래소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0% 미만인 대신 입출금 시 추가 수수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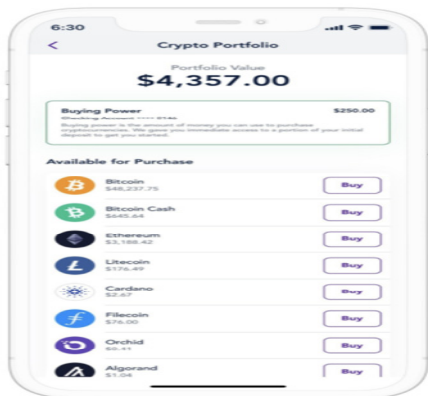
■ 한편, 美 가상자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확립 등 제도권 편입 논의 가속화

- ' 20.7월 美 OCC는 은행의 수탁대상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한편, ' 20.9월 美 은행감독협의회(CSBS)는 미국 州마다 다른 감독규정을 단일화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확립 본격화
- ' 21.1월에는 美 OCC에서 Anchorage Trust에 전국 단위 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인가를 승인해주면서 미국 최초로 디지털자산은행이 탄생
  - 이후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도 수탁서비스, 비트코인 펀드 상품 및 선물 거래 등 가상자산 취급과 관련한 사업진출 계획을 시사
- 반면,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서비스 '렌드(Lend)'를 준비 중이던 코인베이스는 美 SEC로부터 Wells Notice<sup>11)</sup>가 교부되어 출시 계획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 코인베이스는 美 SEC에 'Lend' 관련 개발과정을 수시로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으나 해당 서비스를 투자 또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려는 美 SEC의 입장과 충돌
- 또한 가상화폐 회의론자인 사울 오마로바(코넬대 법대교수)가 최근 美 통화감독청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규제 압박이 확대될 가능성 시사

■ 국내도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 국내의 경우 ' 21.9월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특금법 시행에 이어 내년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예정 이외 가상자산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이 없는 상황
  -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약 600만 명(국내 4대 거래소 기준)에 육박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이 선진국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도 존재
- 미국 등 선진국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도 은행 등 금융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화 마련 필요<sup>12)</sup>

■ Vast Bank의 Crypto Banking 인터페이스



자료 : Vast Bank

■ 미국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인가 및 현황

금융회사	인가 및 출시 내용	가상자산 취급 범위
Anchorage Trust	21.1월 신탁은행 인가를 받아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시작	커스터디, 스테이킹, 가상자산 담보대출 등
BNY Mellon	21.2월 공인은행으로서 별도 라이선스 없이 디지털 커스터디 사업 진출	자산운용 고객 대상 가상자산 보유, 이전 발행업무
US Bank	21.4월 제3자 커스터디 업체와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	비트코인 ETF 관련 수탁 및 관리업무
Vast Bank	21.1월 美OCC 인가를 받아 21.9월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 시작	개인 및 기업고객 대상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 및 커스터디

자료 : 각 사 보도자료

[11] 美 SEC가 불법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기업·개인에게 소송 제기예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